

지역사찰 사회참여 강화

95년 6월27일 34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다시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제는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선 느낌이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이미 세계화와 지방화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 협력적인 대안을 갖고 변화에 대응해 왔는지는 미지수다. 그간 지방자치제 실시를 전후해 지방화시대에 맞는 불교 정책에 대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등이 개최되었지만 요즘은 이런 논의도 뜸해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스님)이 '사찰 사회활동 모델개발 사업'을 추진해 지역 사찰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사찰의 사회복지활동, 생태사찰 만들기, 사찰과 지역사회 연대활동 등 3가지 영역에서 모델을 개발해 불교 사회운

조계종 생태·복지 부문 등 모델개발 내년부터 시행...불교위상 강화 기대

동의 활성화에 유도하겠다'는 이 정책은 그간 불교 사회활동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인식과 비정부민간기구(NGO) 영역의 활성화와 영향력 증대에 따른 정책변화의 산물로 분석된다.

이는 지방화시대의 불교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사찰이 지역사회 발전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 지역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승속 모두의 과감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환경, 교육, 사회복지, 생활협동조합사업 등 다양한 지역사업을 통해 지역시민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개발의 사회화' 운동이 지방에도 확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계종은 지역 사찰의 3가지 사회활동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환경·복지단체 및 개별 사찰의 전문가와 사업영역별 팀을 구성한 후 표본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한 표준화(모델링)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연말까지 모델링 결과를 확정해 토론회 등을 거쳐 정책에 반영,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모델적용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사찰의 사회복지활동은 조계사와 사회복지재단 실무자, 동국대 권경일 박사팀이 모델링을 진행중이다.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의 노하우를 가진 사회복지재단이 종단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자양사회복지관, 서울시립근로자학습소, 영등포보현의집, 낙산어린이집 등을 위탁운영하

면서 탐골공린 무료급식, 장애인 포교에

나서고 있는 조계사가 구체적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모델을 마련중이다.

생태사찰 만들기는 지리산 실상사와 서울 길상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실상사를 중심으로 도농공동체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드라마생명공동체와 길상사에 근거를 두고 전국적인 환경정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맑고향기롭게모임, 사찰생태문화기행의 많은 경험을 가진 두레생태기행 등이 바람직한 생태사찰 살림과 조경, 사찰환경운동의 표준을 만들고 있다.

사찰과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지역 회향사업은 지역 사찰의 청년회와 대불청,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등이 지역사회 활동의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팀은 지역 사찰의 세부적인 역할로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기능, 지역의 갈등 조정역할, 지역발전기여, 무분별한 개발 저지를 통한 환경보호운동 전개, 원용회동 정신을 통한 지역감정 해소, 문화재 보호활동 및 지역문화의 증진역할, 사회복지실현에 적극 참여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사회부 관계자는 "모델링 작업이 완료되면 교육원의 협조를 얻어 고구분사 사회국장회의, 본말사 주지연수회를 통해 스님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중 단 소 식

조계종

직지사에 행자교육원

교육원(원장 일면)은 2년간 행자교육을 직지사에서 갖기로 하고 12월5일 교육원에서 공식적으로 약정서를 체결한다. 이번 직지사와 약정서를 체결함으로써 행자교육원 문제가 한시적인 해결을 보게됐다.

일타스님 열반 1주기

제12교구 본사 해인사(주지 세민)는 대적광전에서 스님과 신도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타 스님 열반 1주기 추모제를 거행했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스님들이 거불(擧佛), 청혼(淸魂), 삼배 등 전통 불교 제례를 지냈으며 일타 스님의 생전 법어를 들은뒤 헌다 및 헌화 의식을 치렀다.

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혜정 대정사는 "삼라만상이 모두 법신 부처님의 몸이다"는 주제로 법문했다. 전국순회법회로 열린 이번 밀교교리대법회는 부산을 마지막으로 서울, 광주, 대구, 포항을 거처온 법회를 회향했다.

총금강회 임원수련회

총금강회는 12월 1~2일 1박 2일간 서울 성북구 통리원에서 임원수련회 및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120여 명의 임원과 대의원이 참가하는 이 행사는 첫날 △총단장·단기 사업소개 △교리강화 △포교활성화에 대한 분임토의를 갖고 이튿날 신임 회장 및 임원 선출과 정기 53, 54년 사업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총화중

내년 예산 96억 승인

총본산 수진사내 회의실에서 제 47차 정기중앙총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96억3천6백만원을 승인의 확정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중앙 5원장 등 임원진을 전면 개편했다. 새로 개편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교육원장=청해 △포교원장=청담 △감찰원장=동오 △문화원장=도공 △호계원장=고담 △총무부장=현오 △재무부장=법오 △사회부장=혜공 △교무부장=대담 △조직부장=화명 △규정부장=원일 △사서실장=만해 △교육부장=지오 △지도부장=혜승 △감찰부장=해암 △조사부장=남오 △문화부장=경산 △포교부장=일광 △호계부장=도명

조동종

5일 중앙총회 예산심의

중앙총회(의장 덕호)는 12월 5일 오전 11시 총무원 회의실에서 정기중앙총회를 열고 2000년도 결산 및 새해 중단 사업과 예산을 심의한다. (02)719-7636



교대학에서 향림사 조실 천운 스님들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진각종

부산서 밀교교리법회



총금강회(회장 백진호)는 17일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혜정대정사 초청 밀교교리 대법회를 봉행(사진)했다. 진각종 총화 연구실장 혜정 대정사를 비롯 성호 진각종 통리원장 해인 진각종 부산교구총장 등 5

사부대중 공동 운영 인천 옴누리선원 개원

사부대중이 함께 사찰을 운영하는 인천 옴누리선원이 12월3일 오전 10시 문을 연다.

'사부대중 신행공동체'의 원력을 세운 원장 종영스님의 발원으로 문을 여는 옴누리선원은 신행공동체라는 말에 걸맞게 선원관리에서부터 중무행정, 법회운영까지 재가자 중심의 신행체계인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투명한 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2-6번지 근명빌딩 3층(60여평)에 위치한 옴누리선원은 사이버법당(www.omnuri.org)을 갖추고 불교인성교양대학(불교학, 경전강좌), 불교문화(선수도, 외국인스님)와 함께하는 영어교실, 우리 가락, 논술) 강좌를 비롯 위문봉사, 신행·자녀문제 상담, 문화·역사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구어갈 계획이다. (032)542-8300

김재경 기자

은하사 백고좌법회

김해 은하사(주지 대성)는 26일부터 백고좌 백일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매주 대덕스님들을 초청해 법회를 연다.

매주 일요일 은하사 보제루에서 열리는 고승초청 법회에는 범어사 조실 지유스님과 조계종원로의원 덕명스님을 비롯 능가스님, 화엄스님, 정광스님, 무진장스님, 벽파스님, 성오스님, 무비스님 등이 법사로 참석한다. (055)337-0101

김해=천미희 기자

팔공산 생태관광권 개발

대구시, 동화사·갯바위등 연계 레저시설

팔공산과 비슬산이 각각 불교·유교문화를 결합한 결승선 환경친화적인 생태관광권으로 개발된다.

대구시는 2003년까지 달성군의 비슬산권과 팔공산의 동화사권을 현재의 음식점, 숙박업소 등 유흥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자연하천, 자연산림공원 등 생태관광지구로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팔공산은 동화사 파계사 부인사 갯바위 등을 연결, 불교문화 체험 관광명소를 특성화하며 인근 불로동고분군은 선사유적 박물관 등을 건립하는 등 역사관광지로 정비된다.

경북불교대 연꽃마을 위문



경북 영주시 경북불교대학 품물단(임병주 단장) 30명은 19일 경북 예천 연꽃마을(주지 정안)에서 160여 명의 수용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문 공연을 갖고 의류 2000점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방유수 영주지국장

수원에 시민선방 공소사 개원



◇청아스님

지난 5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물리학 박사 출신으로 동국대 석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해 화제가 되었던 청아스님은 "시민선방을 통해 마음 지리를 찾는 생활선을 가르치는 한편 정기법회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불교의 우주론을 물리학 이론으로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31)246-1001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스님의 증명으로 거행된 이날 개원법회에는 음성 광명선원장 무애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92년 <초기 우주에 붕괴되는 입자들의 우주론적 제약>이란 논문으로 물리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주지 청아스님은 "시민선방을 통해 마음 지리를 찾는 생활선을 가르치는 한편 정기법회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불교의 우주론을 물리학 이론으로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31)246-1001

김재경 기자



◇시민 3000여명은 18일 부산역광장에서 낙동강 도보순례단 환영대회를 개최했다.

낙동강 1300리 도보순례 회향

함양·산청선 "지리산담 백지화" 거리행진

18일 부산역 광장에서는 낙동강 1300리 도보 대장정을 마치고 도착한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낙동강도보순례단(단장 수경스님) 환영회 및 낙동강 살리기 시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시민대회에서는 지난달 23일 낙동강 발원지인 태백의 황지 못에서 출발, 17일 종착지인 부산의 을숙도에 도착하기까지 26일 동안 낙동강 물길을 따라 걸어온 도보순례단을 환영하고 낙동강과 지리산을 함께 살리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결집했다.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도법스님과 이종석 부산경실련 대표 등 시민 3백 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도보순례단의 경과보고와 공동결의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낙동강살리기

부산시민총괄본부와 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 범영남권낙동강유역담보대투쟁위원회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연대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수경스님, 이원규 시인, 하옥 녹색연합 간사 등 16명과 지원팀 4명으로 구성된 순례단원은 이날 시민대회를 마친 뒤 20일 지리산담 예정지인 함양과 산청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와 군민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함양군 휴천면 문정초등학교와 산청군 산청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지리산담 백지화'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환경단체 회원들과 주민 등 2000여명은 거리행진을 벌이며, 정부의 물관리 정책의 비합리성을 비판하고 지리산 담 건설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정휴스님 전집(전 10권) 출판기념회에 성원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의참보하옵고 정휴스님 전집(전10권) 출판 기념회가 2000년 11월22일 오후 5시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성대히 봉행되었습니다. 제방 고승대덕과 덕망 높으신 신도 여러분들께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접 찾아 뵙고 사의를 표하는 것이 예의인 줄 아오나 우선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오니 헤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휴스님 전집 (전10권) 출판기념회

2000. 11. 22 수요일 오후 5시 한국일보 송현클럽

정휴스님 전집(전10권) 출판기념회 준비모임 법등·청화 합장